손봉채 작가의 5년만의 신작 '꽃들의 전쟁'

꽃의 전쟁

'國花' 통해 현상 너머 본질을 찾다

손봉채 개인전, 6월6일까지 김냇과 5년 작업 '꽃들의 전쟁' 연작 첫선

"아니요. 완전히 접습니다."

기존 시리즈와 작업을 병행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20년간 천착해온, 자신을 각인시킨 대표 시리즈를 내려 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작품에 '올인하겠다'는 각오로 읽혔다.

설치미술가 손봉채 작가가 새로운 시리즈 '꽃의 전쟁'을 선보이며 또 다른 작품 세계를 열어간다. 새로운 시도는 작가에게도, 그 작품을 만나는 이들에게도 흥미로운 일이다.

오는 6월6일까지 문화공원 김냇과에서 열리는 '현상과 본질'전은 그가 5년 동안 모색해온 신작을 선보이는 자리다. 손 작가가 광주에서 개인전을 갖는 건 13년여만으로 신작과 많은 사랑을 받았던 대표작을 함께 풀어놓으며 새 출발을 알린다.

손 작가는 소나무가 주소재인 입체회화 '이주민' 연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작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감성이 동시에 느껴진다. 여러장의 폴리카보네이트에 그림을 그려 레이어를 쌓아가며 입체감을 만드는 작업은 노동집약적인 공력이 들어가고, LED와 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 현대적 기법과 재료도 적극 차용한다.

이번 신작은 '꽃그림'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관람객들은 그의 작품 앞에 한참을 머물다 갔다. 볼수록 새로움이 보이고, 궁금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화사한 꽃의 향연이 펼쳐지는 화폭은 얼핏 생화나 조화의 실물을 액자 안에 넣은 것처럼 보인다. 어떤 작품은 사진처럼도 보인다. 투명판에 손으로 그린 작품이라는 걸 발견한 관람객들은 짧은 탄성을 지른다.

전시에 나온 신작은 모두 9점. 큰 작품은 6개월간 꼬박 작업했다. 그는 17년전부터 '꽃'을 소재로 한 작업을 구상하며 스케치 작업 등을 이어갔지만 그 꽃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좀처럼 답을 찾지 못했다. '꽃'에 담길 스토리에 대해 고민하던 중, 파리 드골 공항에 일렬로 걸려있던 각 나라의 국기를 보며 영감이 떠올랐다. '국화'(國花)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겠다 싶었다.

'이주민' 연작은 마치 수묵화같은 차분하고 묵직한 느낌과 공간 구성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얼핏 조화처럼 보이는(작가의 의도다) 키치적 느낌을 담은 꽃으로 변신은 얼핏 그 '간극'이 커보이기도 하지만 그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동일하다. 현실과 본질의 차이, 그 진실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이주민 연작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 하나 하나를 내리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담은 작품입니다. 조경수로 사랑받는 소나무는 잘 가꿔져 멋있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투쟁의 과정이 담겨있죠. 지금 당신이 보는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냐 소나무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번 시리즈도 동일합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평화롭게 보이는 꽃의 세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온힘을 다해 살아내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각 나라의 국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전쟁, 무역 다툼 등 치열하고 냉엄한 현실이 내재돼 있습니다. 그 진실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꽃들의 전쟁'

손 작가는 이 아름다운 꽃들이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진짜인지, 한 데 어우러져 있는 모습이 정말 '조화로운' 모습인지 생각해 볼 것을 권한다.

전시에는 원화와 에디션 작품이 동시에 나왔다. 에디션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찍어내지는 않고, 각 작품마다 조금씩 다른 '꽃'들을 품고 있어 흥미롭다. 원화는 중첩된 꽃의 이미지와 색을 보여주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시그니처인 조명을 넣지 않았다.

'이주민' 연작도 여러 점 전시돼 있다. 수묵의 느낌이 강한 흑백의 작품부터 푸른색 등 다채로운 색깔을 넣은 작품까지 시리즈 변화 과정을 볼 수 있다.

마침 김냇과에 전시된 에디션 원작은 현재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다시봄'전에서 만날 수 있다. 미술관에는 1997년 최연소 작가로 참여해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광주비엔날레 참여작품 '본질은 보이지 않는다' 역시 전시돼 손 작가의 '처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해외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던 손 작가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하반기 부터 새 시리즈를 들고 미국 뉴욕 등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그는 젊은 시절 뉴욕 프랫인스티튜트에서 공부하고 귀국하며 작품의 터닝포인트를 맞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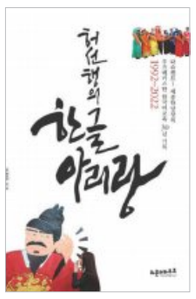
한편 이번 전시는 메세나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김냇과(후원회장 박헌택 영무토건 대표)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손작가는 김냇과 2를 작업실로 제공받아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한글 세계화' 허선행 타슈켄트1 세종학당장

'한글 아리랑' 출간 기념 북콘서트…14일 고려인문화관

우즈베키스탄에서 30년째 한국어 교사로 활동 중인 허선행 타슈켄트1 세종학당장. 그는 전남대 사범대를 졸업한 직후 1992년 3월 현지 고려인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 지금까지 한국어 교육자로서의 외길 인생을 살았다.

그의 삶을 다룬 책 '허선행의 한글 아리랑'(라운더바우트)의 출간을 기념하는 '허선행 북콘서트'가 오는 14일 오후 2시 광산구 월곡 고려인문화관 '결'에서 열린다.



책은 허선행 단장의 현지 교단사를 다루는 한편 1991년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이 기금을 모아 옛 소련 지역에 6개의 한글학교를 세운 과정도 담고 있다.

당시 광주·전남 지역 인사들이 현지 고려인을 위해 한글학교를 만들고 지원한 기록은 지난해 12월부터 고려인문화관에서 '광주한글학교 개교 30주년 기획전'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그런 기획전과 맞물려 의미를 더하고 있다.

허 단장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리 정부로부터 국민포장 수훈, 대통령 표창, 국민훈장 순 등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책의 저자인 조철현 작가는 "광주가 배출한 한글 세계화의 대표적인 인물인 허선행 학당장의 출판 기념 북콘서트는 오는 15일 스승의 날을 더욱 뜻깊게 만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공연 모습.

'불멸의 사랑, 그 찬란함을 노래하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오늘 북구 청소년수련관

우리 가곡을 함께 부르고 배우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제 148회 공연이 오는 13일 오후 7시 광주시 북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5월 공연인 이날 무대는 '불멸의 사랑, 그 찬란함을 노래하다'라는 주제로 꾸며진다.

이날 회원들은 김효근의 시 '첫사랑'을 합송하며 '추억의 노래 그네'와 '언덕에서'를 부르는 것으로 공연을 시작한다. 이어 '목련화', '사랑', '고향의 노래', '사랑의 노래', '그리움도 행복이어라', '그리움', '잔향', '빛으로 다가온 사랑', '진달래꽃', '목련이여', '물망초의 노래'를 순서대로 들려준다.

이날 무대에는 소프라노 정난임·유양업·정인숙·이현임·서애숙·나인희·서혜란·고재경·정옥남·심옥효·김종례·김희숙과 테너 박상휘·손금옥·이우식·조성식·김종석, 메조 소프라노 조정옥·박원자, 바리톤 이길호·박황수, 베이스 기세관이 함께 한다.

한편 6월에 열리는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는 '광주·전남 작곡가의 가곡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토요상설공연…13일 전통문화관

'민요, 오늘의 노래'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 이번 주 토요상설공연 무대(14일 오후 3시)는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의 '민요, 오늘의 노래'가 펼쳐진다. 이날 공연은 'Tune for us'로 시작해 창작곡 '행복한 아침', '긴 소나기 내리고'가 연주된다. 이어 민요 '남원산성'과 '남도 뱃노래', '새타령'을 주제로 재해석한 '둥가', '어기어차', '날아들다'가 펼쳐진다. 〈사진〉

연주는 단소·소금 김현무(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 대표), 노래 박소연, 해금 김단비, 피리·태평소 박시현, 아쟁 김하린, 생황 장유진, 건반 정관영, 드럼 이다훈이 맡는다.

2017년 결성된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은 국악을 중심으로 클래식, 대중가요 등 다양한 음악을 접목해 국악의 대중화에 힘쓰는 단체다. 국악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 유튜브와 현장에서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한편 오는 21일은 연희·무용 무대로 서연수의 '소리와 춤이 함께하는 White Sound'가 펼쳐질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통문화관 홈페이지 참조. 문의 062-670-850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T 페스티벌 2022' 31일까지 작품 공모

'ACT 페스티벌 2022'는 예술의 창의성과 기술 융합을 지향하는 축제다. 전시, 공연, 강연, 토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융·복합 콘텐츠를 소개하고 국내외 예술가와 문화생산자들 간의 기술과 경험을 교류하는 자리다.

ACC가 'ACT 페스티벌 2022'와 함께할 작품을 공모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공모는 융·복합 콘텐츠를 창·제작하는 국내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며 주제는 '공존의 관계망'. ACC는 다양한 관점과 매체 매개를 바탕으로 탐구하고 모색한 작품을 토대로 6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채택된 작품은 오는 11월 'ACT 페스티벌 2022'에서 공연할 기회와 공연 사례비 등을 지원한다.

공모 희망자는 ACC 누리집서 양식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 확인 가능하다. 문의 062-601-4423. /박성천 기자 skypark@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